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 무과실책임(No-Fault) 자동차보험제도, 인기 시들

- 미국 RAND 연구소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1970년대부터 일부 주(州)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과실책임(No-Fault) 자동차보험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.
 - 현재 미국 내 32개 주에서는 상대방의 과실로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손실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과실책임(tort-based) 자동차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, 나머지 주에서는 무과실책임 자동차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 - 무과실책임 자동차보험제도는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대한 부상 등을 제외하고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고 있으며, 사고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이나 의료비용 등을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.
 - 그러나 RAND 연구소는 무과실책임 자동차보험제도 하에서 급격한 의료비용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, 이것이 소송비용의 감소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함.

- 연구를 수행한 앤더슨(Anderson) 연구원은 무과실책임 자동차보험제도 하에서는 의료비용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일반진료 대신 특수한 형태의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용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설명함.
 - 1987년, 무과실책임 자동차보험제도 하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비용은 과실책임 제도에 비해 12%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, 2004년에는 73%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과실책임 자동차보험제도 하에서의 의료비용 증가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됨.
 - 또한 무과실책임 자동차보험제도가 교통질서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동 제도는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있음.
 -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무과실책임 자동차보험제도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, 현재 몇몇 주에서는 기존의 무과실책임 자동차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.

(Insurance Journal, 3/2)